

장수 오성리 봉화, 전북도 기념물 지정 예고

봉화군 주거 추정되는 곳·불씨 보관장소 확인·삼국시대 가야 토기 편 등 출토 역사적 가치 높아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1-2번지 정상부에 자리한 오성리 봉화가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장수군 오성리 봉화는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 지정 검토 심의를 통과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으며, 한 달 정도의 지정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장수 오성리 봉화는 돌을 쌓아 올린 석축형 봉화로 평면의 형태가 방형(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긴 쪽이 8m 내외, 짧은 쪽이 6m 내외, 높이는 3m 정도의 규모이다.

장수군 일원에 자리한 봉화 중 그 외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봉화가 자리한 곳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봉화군(봉화군)이 주거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불씨 보관장소가 함께 확인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씨 보관장소에서는 석영(차돌)이 묻혀져 발견됐는데 이는 불을 피우기 위해 최소 3.5km 밖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성리 봉화는 장수군 산서분지와 대성고원을 관광(국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탁월한 지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가야 토기 편과 영남지역 가야유적에서 확인되는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1-2번지 정상부에 자리한 오성리 봉화가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사진은 현지심사 모습)

기와 편 등이 출토돼 역사적 가치가 높고 평가됐다.

그동안 장수군은 가야사 조사 준비를 통해 가야문화유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삼봉리고분군을 시작으로 동촌리고분군, 영취산봉화, 대적골 철 생산유적지, 침령산성, 삼고리고분, 오성리봉화 등을 군 향토문화유산

및 전라북도 기념물, 국가 사적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희성 부군수는 "오성리 봉화가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검토 심의를 통과하는 좋은 결과가 나와 정말 기쁘다"며 "가야사를 비롯한 지역의 고대문화가 훨씬 타오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광호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개관 13주년 '금난세의 오페라 이야기'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개관 13주년 기념공연으로 미에스트로 금난세 지휘자를 초청 '금난세의 오페라 이야기(비제 카르멘)'를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매 공연 호평과 찬사를 이어오는 금난세의 '오페라 이야기'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 총감독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세의 유쾌하고 재치있는 해설과 지휘로 꾸며지며 이번 무대는 작곡가 비제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카르멘의 내면과 작품세계를 금난세 특유의 친근하고 편안한 음색으로 시민들과 함께 음악적 대화를 나누듯이 진행될 예정이다.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와 국내 최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63명)'이 전하는 웅장한 선율 속에서 국내 최고의 성악가 메조소프라노 백재은과 테너 허영훈의 아름다운 허바네라와 집시의 노래 등 아리아와 이중창의 화려한 무대는 관객들의 클래식 감성을 충분히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송성용 문화홍보추진실장은 "봄기운 가득한 4월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고품격 클래식 산책을 즐기며 감성 힐링을 최고로 끌어 올리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조용안 신임 예술감독 임명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에 조용안씨를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4년 4월 4일까지 2년이다.

조 신임 감독은 우석대학교 국악과와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관소리 장단보유자로,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단장을 역임했다.

한편 조 감독은 춘향가, 흥부가 등의 배경지

이자 춘향제와 흥부제가 개최되는 남원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민속음악과 관광자원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국립민속국악원만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양한 창작 작품개발과 남도음악을 모태로 한 시나위, 산조 등 다양한 민속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가·무·악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국립예술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은 "조용안 신임 예술감독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연 운영능력과 예술성을 토대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유물구입 추진

진안군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 및 옛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유물구입을 추진한다.

이번 구입대상유물은 임진왜란 용치전투와 관련된 유물이나 진안 관련 고지도나 고문헌, 고문서를 비롯하여 마이산, 진안의 문화유산·경관·풍속 등을 1990년 이전 촬영한 사진자

료, 인삼·홍삼과 관련된 유물, 민속품 등으로 진안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유물유상양여 신청기간은 4월 22일까지로, 진안군과 진안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진안역사박물관으로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은 전문가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모양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료

종합대상 김셋별 씨 선정

사)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대표 김용태)가 주관하는 '제13회 고창모양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2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성황 속에 막을 내렸다.

관소리, 무용, 민요, 기악·타악의 4개 부문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악인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도 무관중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열정이 빛을 발했으며, 그 결과 단연 돋보이는 실력으로 종합대상을 김셋별(부산광역시)씨가 선정되었다.

김셋별씨는 심금을 울리는 공연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국회의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 외 부문별 대상은 ▲관소리부 장정숙(전남 함평군)



▲무용부 정춘심(전남 여수시) ▲민요부 손덕춘(경남 거제시) ▲기악·타악부 서미자(전북 전주시)가 차지했다.

한국예술연구진흥원 고창군지부 김용태 회장은 "앞으로도 고창모양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통해 신진 국악인의 발돋움과 유능한 국악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여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전국을 대표하는 국악경연대회로써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업무협약

부안군문화재단-여균동 영화감독... 전문적 영상기술 교육 등 진행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과 우리영화만들자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영연, 이하 우리영화만들자)이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부안군청에서 부안군 청소년을 위한 '우리영화만들자' 아카데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에서는 부안군 지역의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전문교육과 부안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부안군 청소년을 위한 지역특화형 진로 체험 기회 제공 등 부안지역 영상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영상기술 교육을 통해 영상 문화 도시로 부안군 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균동 영화감독이 직접 지도하게 되는 이번

부안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는 4월 한 달 동안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6월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현직 강사진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교육을 통해 부안군 청소년들이 직접 시나리오부터 영화제작까지 하게 된다.

권익현 부안군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지역 청소년들에게 영상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에 참석을 희망하는 관내 청소년은 25일까지 'wooyoungza.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